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한나라당의 혼선과 무능이 반복되고 있다. 개헌 등 국정의 주요 화두를 던져놓고는 뒷감당도 못하는 일이 쌓이고 있다.

당 소장파들의 모임인 민본21이 의회해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I)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다시 한 번 집권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가 38.4%에 불과한 반면, '다른 정당으로 바뀌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61.6%에 이르렀다.

한나라당의 대위기

한편, 경제 유지를 지지하는 측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갑세는 현 정권의 핵심 정책 기조인 만큼 이를 철회하는 것은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훼손시키는 것이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다양한 조사 결과들이 주는 함의는 대선 후보를 포함한 여당 지지의 25% 정도가 거품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 정권 재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와 박 전대표의 압도적인 지지도에 바탕을 둔 대선에 도취되어 변화와 개혁을 멀리하면 막판 DJP 연대로 패배했던 97년 대선의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다.

일부 국민들이 보수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점도 간과

서는 안 된다. KPSI 조사에 따르면, 향후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부패하지 않는 깨끗한 보수'(30.0%),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보수'(28.2%)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오히려 음습 마속의 심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가려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갑세 철폐가 대통령 경제특보 말 한마디에 지도부가 서둘러 논쟁을 중단한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한나라당이 진정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부자갑세"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고, 중간층을 확보하기 위해 중도우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갑세 철폐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당내 소장파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논쟁을 통해 결론짓는 성숙하고 활력 넘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 지지도와 상관없이 어느 정당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토대로 변화의 중심에 서느냐가 2012년 대선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날개 단 '풍력산업' 민자유치가 관건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전 영광 원전에서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영광과 전북 부안 해역에 오는 2019년까지 모두 9조2590억원의 투입해 2500MW 규모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돈'이다. 이번 에 발표된 9조259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정부 지원은 고작 3%에 불과한 290억원이 전부다. 무려 97%에 달하는 민자

정부는 로드맵은 먼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풍력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현 계획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 2년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영광과 부안 해역을 최적으로 결정

전남도는 언제든 투자자들이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하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실종... '義郷' 부끄럽다

광주·전남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보존과 활용 노력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적지에 안내판 하나 없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홈페이지에도 사적지 관련 정보가 전혀 없는 등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대 광주분부가 위치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등에는 안내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특히 광주학생운동의 시발이 됐던 광주역 터와 3·1 운동

광복회 광주·전남지부가 발표한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23개 지역 176곳의 보존실태와 활용방안' 보고서에 보면 얼굴 들기가 민망할 정도다. 광주시 동구 구동 광주공원의 현충탑 자리는 일제가 신사참배를 위해 세운 '광주신사'가 있었으나 이곳 안내판에는 한국 전쟁 전철장병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다고 한다.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찾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따라서 차체에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이들 사적지에 대한 심층조사와 보존, 관리 및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이는 문화민족으로서의 당당해야 할 일이고 지역민의 문화적·정신적 정체성 확립에도

의로 칼럼

최정기



완연한 초겨울을 맞은 11월에는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인해 돌연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쌀쌀한 기온으로 말초혈관이 수축해 운동중 심장마비의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

공허한 느낌이 들거나 식은땀 또는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한 다음에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기고

박경곤



국토 서남권의 중심인 목포는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면서, 서남권 8개 시·군의 관광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인들의 창의성과 발상의 전환, 그리고 우리 일행을 챙겨주는 친절함은 마음에 남는 바가 많았다. 지치미술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베네세 하우스는 1992년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호텔과 미술관 등 4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 돌연사 예방해야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중 특히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혈관 질환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통 45~75세 사이의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때문이다. 또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는 혈압을 더 올라가게 할 수 있으며 장시간 사우나는 탈수현상 때문에 심장이 늘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쇼크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문화예술이 관광객 불러 들인다

세계적인 여행전문지 콩드 나스트 트래블러지(Condé Nast Traveler)가 선정한 2010년 세계 10대 명소인 나오시마, 일본의 출판교육기업 베네세 그룹의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이 1987년 섬의 절반을 사들인 후 460억원(한화 약 6400억 원)을 투자해 미술관을 세웠다.

다. 사갈, 고경, 피카소, 로댕, 클로드 모네, 르누아르 등 세계적 거장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나의 눈과 마음은 과분한 호사를 누렸다. 미술관 입구에 전시된 클로드 모네의 '수련' 작품은 연못 속의 수련과 기다랗게 늘어뜨린 수양버들을 그대로 연출함으로써 작품 속에 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했고 주변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섬세한 마인드를 배울 수 있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학원들 자격 미달 원어민 강사 채용 결국 학생만 피해

2014학년도 수능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국·영·수의 비중이 확대됐다고 한다.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영어공부에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최근 학원가의 원어민 강사 중 상당수가 영어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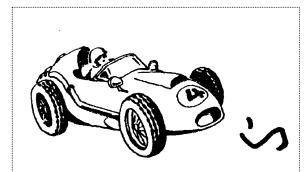
강사가 바뀌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놔두지만 두세 달에 한 번씩 강사가 바뀌는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다. 무자격자에 자격 미달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나마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영어 원어민 강사들, 그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권리를 빼앗긴 건 아닌지, 영어공부와 입시를 보면서 부모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無等鼓

포틀러 원(F1) 머신의 운전석은 콕핏(cockpit)이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물체에 걸맞게 전투기 조종석과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보통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연봉에 인기와 명예까지 누릴 수 있는 자리다. 7시즌 챔피언 경력을 자랑하는 미하엘 슈마허는 이 자리에 앉아 한때 연간 1000여만원을 벌어들였다. 루이스 해밀턴(맥라렌)은 세계적 팝 스타인 세르징가와 연인 사이다.

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4G의 중력가속도로 벽이나 옆 차를 들이박아 생명을 잃기 십상이다. 2시간 동안 4라터의 밥을 먹고 레이스를 끝내면 체중이 3kg까지 빠진다. 운전 실력만으론 F1 드라이버를 꿈꿀 수 없다는 얘기다. 달리기, 수영, 사이를 등으로 심폐기능을 키워야 하고 2시간의 레이스를 버틸 수 있는 손과 다리 근육도 만들어야 한다. 이봉주의 지구력, 박지성의 체력, 유승민의 순발력, 장미란의 근력에 비행기 조종사와 같은 판단력을 콕핏 착석의 전체 조건으로 제시하는 이 유다. 코리아그랑프리 연영인 KAVO가 연일 못매를 맞고 있다. 경기장 건설 지연, 입장권 판매부진, 영성환 교통대책으로 첫 대회부터 망치게 했다는 비난이다. F1대회의 '콕핏'에 해당하는 이 조직에 도까지 치솟는다. 수천달 영암에서 열린 코리아그랑프리에서처럼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지속 230km로 빛길 운전은 해야 할 때도 있

F1콕핏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김종일,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권매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